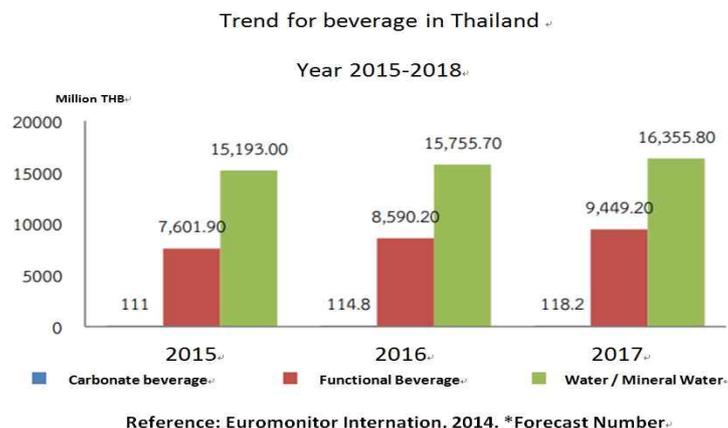


태국 음료시장 트렌드 및 한국음료 현황

* 작성처 : 방콕 aT

□ 태국 음료시장 트렌드 및 현황

- 아시아 국가, 특히 태국의 음료 소비 형태는 젊은 층의 소비 형태를 따라가게 되는데, 이로 인해 도시적 라이프스타일, 건강에 대한 개념, 친환경 음료의 선호도가 뚜렷해짐
- 차, 비타민류 등 기능성 음료와 프리미엄 생수 판매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향후 증가세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시장에서 주목 받는 음료수 종류
 - 알로에(Aloevera) 음료
 - 바닐라(Vanilla)향 음료
 - 분리유청단백질(Whey protein isolate), 분리콜라겐단백질(Collagen protein isolate) 등 단백질 함유음료
 - 장기능 개선 당뇨병에 효과 있는 수용성식이섬유(Fiber) 음료
 - 오메가(Omega), DHA 가 함유된 기능성 음료



- 최근 시장에 출시되어 각광받는 브랜드 및 제품 사례
 - 말레이시아 기업 F&N는 2014년 태국에 진출하여 에너지 음료 “100plus”를 태국 시장에 출시를 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

- 2013년 T.C. pharmaceutical Industry의 herb 음료 “Puriku Herbal” 출시
- 이에 태국기업 Ichitan에서 Herb 음료 “Yen Yen”, “O-Herb” 출시
- 한국음료는 2011년 AK FTA 이후 60%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었으나, 실질적인 관세인하 적용을 받지 못해 다양한 종류의 한국음료가 태국으로 수입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아직은 1~2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유통이 아닌, 주요 매장에서만 유통·판매되고 있음
 - * (14.5월) 1,126천불 ⇒ (15.5월) 1.9백만불 605.8 증가
 - * AKFTA 해당 항목(관세율 0%, 첨부파일참조)이 있으나 한국 정부에서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 태국에서도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음. 따라서 일반관세율(General Rate :종가(Advalorem) 10% 혹은 3.5Baht/liter 중 큰 값을 채택) 적용함
- 현재 수입되고 있는 한국의 음료류는 탄산음료(롯데칠성), 맛을 가미한 멸균우유음료(빙그레 바나나우유), 두유음료(정식품 베지밀) 및 커피음료(서울FNB 아라버스) 등이 있음
- 최근 OKF의 제품(주스, 탄산음료)의 수입업체가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아라버스 커피음료가 유통채널을 확장하고 있어 음료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

[현재 태국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한국음료 제품]



[OKF 과일주스]



[서울FNB 아라버스]



[정식품 베지밀]